

【연구논문】

2012년 미국 대선과 공화당의 과제

이재욱

(연세대)

I. 서론

2013년 2월 26일자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미국 공화당의 주요 인사들이 동성 간에도 결혼할 수 있고 또 그 결혼이 이성간 결혼과 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 문서 (legal brief)에 서명했다고 전해졌다.¹⁾ 이는 공화당 현 지도부를 이끌고 있는 보수적 성향의 베이너(John A. Boehner) 하원의장에 대한 직접적 도전과 맞먹을 정도로 파급력 있는 사건으로서, 2012년 11월 대선에서 공화당이 충격의 패배를 당한 후 공화당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당내 이념갈등의 한 단면을 시사해주고 있다. 기사에 의하면, 대법원에 제출될 법률문서는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에 의해 채택된 법률제안 8(Proposition 8)이 금지하고 있는 동성 간 결혼이나 그 밖에 연관된 금지조항들이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동성애자들에게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부과하여 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문서에 서명한 공화당 지도인사들의 면면은 화려한데, 먼저 공화당 캘리포

1) Stolberg, G. Sheryl. Republicans Sign Brief in Support of Gay Marriage, *New York Times*, Feb. 26, 2013.

2 이재목

니아 주지사 후보시절 해당 제안(Proposition 8)을 지지했던 메그 휘트먼(Meg Whitman) 현 휴렛패커드 회장(President and CEO), 2012년 대선 경선 참여 당시 동성결혼에 대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헌츠먼(Jon M. Huntsman Jr.) 전 유타 주지사를 비롯한 6명의 공화당 출신 전직 주지사들, 헤들리(Stephen J. Hadley), 구티에레즈(Carlos Gutierrez) 등의 부시정권 하의 주요 내각 구성원들, 그리고 두 명의 공화당 출신 현직 하원의원(Ilena Ros-Lehtinen of Florida, Richard Hanna of New York)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공히 주장하기를, 동성 간 결혼의 허용은 그것이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시민 개인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수적 자유주의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변화가 결코 공화당이 본래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conservative values)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공화당 전직 지도자들의 입장(변화)은 1996년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이래로 결혼을 남성과 여성간의 결합(the union of men and women)으로 규정지음으로써 동성 부부들의 복지혜택을 제한하고 있는 연방결혼보호법(Defense of Marriage Act:DOMA)을 방어하기 위해 연방예산 사용을 허가한 공화당 하원 지도층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높은 실업률과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장기침체 등 나쁜 국가 경제 상황 하에서 2012년 대선은 자칫 공화당에게 지기 어려운 선거로 비추어지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동성결혼에 대한 공화당의 주요 지도자들의 입장변화에서 잘 드러나듯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충격의 패배를 당한 후 공화당은 앞으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두고 현재 당내 갈등을 겪고 있으며 또한 동시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실제로 공화당 내부에서는 롬니(Mitt Romney) 후보의 대선 패배를 두고 앞으로 공화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갈라져 논쟁하고 있는데, 한 입장이 지나치게 우경화된 공화당의

이념 노선을 수정 혹은 리브랜딩(rebrand)해야 한다는 노선이라면, 반대 입장은 롬니 후보가 충분히 보수적이지 않아서 패배했다고 보기 때문에 보다 원칙적인(pure) 보수주의 가치로 회기해야 한다는 다소 강경한 입장이다. 예를 들어, 전자의 리브랜딩 노선을 잘 보여주는 인터뷰로서, 공화당 소속의 사우스 캐롤라이나(South Carolina) 상원의원인 그레이엄(Lindsey Graham)은 한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95%의 흑인 유권자 지지를 잃고, 2/3의 히스패닉 유권자 및 30대 이하의 청년 유권자 층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이 결코 우리가 지나치게 보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때 미국 공화당의 극단적 우경화를 이끌었던 킹그리치(Newt Gingrich) 또한 이와 같은 리브랜딩 노선에 입각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CBS This Morning”에 출연해 말하기를 “우리(공화당)는 틀렸고, 이 나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공화당 지도자들이 지금 재고해야 하는 것은 오바마 재선의 일등 공신이라 할 수 있는 히스패닉 및 다른 유색인종 유권자들에게 앞으로 공화당이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가를 고심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공화당)는 소수당(minority party)이 될 것이다.” 이 같은 리브랜딩 노선에 대조적인 후자의 보다 강경한 입장은 2010년 미국 중간선거와 201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공화당 선거 레이스에 막대한 영향을 행사했던 반정부 지향의 (anti-government) 티파티(Tea-Party) 운동이 잘 대변해 주고 있다(Dorning and McCormick 2012). 실제로 티파티 운동 계열의 한 인사(Jenny Beth Martin)는 대선 패배는 순전히 워싱턴 D.C.의 공화당 기득권층(Republican Party Establishment)이 취약한 중도 성향 후보자를 선출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보수적 논조의 정치평론가인 크라우샘머(Charles Krauthammer) 또한 이와 유사하게 폭스 뉴스(Fox News) 인터뷰에서“롬니 후보는 북동부의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전형적 인물(traditional figure)로서 그는 공화당의 미래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롬니의 러닝메이트였던 폴 라이언(Paul Ryan)

4 이재목

이나 플로리다 상원의원인 루비오(Marco Rubio)가 공화당을 좀 더 보수 주의적인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대선 패배 이후 공화당의 미래를 두고 당내 논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공화당이 선전하기 위해 어떤 노선을 취하는 것이 옳은가는 여전히 지켜볼 문제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화당이 최근 미국에서 치러진 6번의 선거에서 5 차례나 민주당에게 유권자 투표(national popular vote)에서 뒤쳐졌다는 것이며, 소수인종 출신 유권자 비중의 증가로 대변되는 유권자 구성의 인구통계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2008년 대선과 2012년 대선에서 드러났듯이, 20-30대의 젊은 유권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강한 지지를 보인 반면에 공화당 지지 성향으로부터 점점 이탈해 가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이 장기적으로 미국 정당정치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미국의 정치사회적 변화에서 초래되는 숙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2년 대선에서 심각한 경제위기와 높은 실업률 등 경제적 악조건 하에서도 오바마 현 대통령은 어떻게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고, 공화당은 왜 패배하였는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공화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논의의 초점은 주로 미국 유권자 구성의 인구통계적 변화(demographic shift), 미국 시민들의 주요 사회 이념적 이슈(social issues)에 대한 태도 변화, 그리고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의 변화 추세 및 유권자들이 바라본 정당 이미지에 놓여 있을 것이다.

II. 왜 공화당은 2012 선거에서 패배하였는가?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은 높은 실업률과 장기간 경기침체 등 경제적 약조건 하에서도 2012년 미국 대선에서 재선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인단으로부터 332표를 얻었던 반면, 상대당의 롬니 후보는 206표의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전체 유권자 유효투표 수(national popular vote)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51.1%의 표를 획득한 데 비해, 공화당 롬니 후보는 47.2%의 유권자 투표를 얻는데 그쳐, 그야말로 공화당과 롬니 후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에게 깨끗이 패배했다. 공화당은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하원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데서 위안을 찾아야 하지만, 전체 유권자 투표수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에 비해 약 150만 표나 적은 득표를 기록함으로써 하원에서의 승리마저도 크게 달가워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이번 선거에서의 패배가 공화당에게 더욱 가슴 아픈 것은 2012년 선거는 공화당에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도에 처음 당선된 이후에도 월스트리트(the Wall Street) 발 금융위기로 대변되는 장기간의 미국 경기침체는 좀처럼 회복될 보이지 않았고, 이런 국가 경제 상황은 공화당으로 하여금 2012년 대선을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으로 간주하게 한 면이 있다. 1956년부터 2012년까지 약 60년 동안 미국에서 재선에 도전했던 대통령들의 임기 중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을 분석한 캠벨(James E. Campbell)에 의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첫 임기 중 경제성장률은 약 2.1%로 10명의 전임 대통령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에 놓인다.²⁾ 오바마 현 대통령 보다 나쁜 경제 수행 업적을 보여준 두 명의 대통령은 1992년 재선에 도전한 아버지 부시(G. H.W. Bush) 대통령(1.8% 경제성장률), 그리고 1976년 탄

2) Campbell, James. "The Miserable Presidential Election of 2012: A First Party-Term Incumbent Survives," *The Forum*, 10(4), 2012. p.23.

핵된 닉슨(Nixon)의 바통을 이어받아 재선에 도전한 포드(Gerald Ford) 대통령(1.5% 경제성장률) 뿐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두 명의 대통령 모두 그 해 재선 도전에서 실패하였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의 기록 보다 한 단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준 1980년 선거의 카터(Jimmy Carter) 대통령(2.3%) 또한 재선에 실패하였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2012년 선거에서의 선전은 충분히 눈여겨 볼만 하다.³⁾ 선거가 치러졌던 2012년의 높은 미국 실업률(unemployment rate, 7.9%) 또한 현직 오바마 대통령 보다는 공화당 롬니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듯 보였고, 실제로 공화당은 2012년 대선을 재임 중 저조한 경제성과를 기록한 현직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심판(referendum)으로 몰아가는 선거 전략을 취했으나 이마저도 예상대로 작용하지 않은 것이다.⁴⁾

그렇다면 이렇게 경제 상황 등 선거의 외부 조건이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화당은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하였나? 공화당과 롬니 후보의 대선 패배 이유에 대해서는 허리케인 아이작(Issac)이 플로리다를 강타하면서 텀파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Republican Convention)를 망쳤다든지, 선거 레이스 막바지에 허리케인 샌디(Sandy)가 동부 해안을 덮치면서 국가 지도자로서 이미지 어필에 성공한 현직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등의 기후적인 요인에서부터 공화당과 롬니 후보는 잘 못된 캠페인 전략에서 민주당에게 패배했다든지 등의 그야말로 다채로운 이유들이 제기되고 있다⁵⁾ 본 섹션

3) 물론 경제성장률이나 실업률 등이 대통령 선거결과를 예측해 줄 수 있는 단일 지표는 절대 아니다. 1976년 선거에서의 포드 대통령의 패배나 1980년 선거에서의 카터 대통령의 패배에는 많은 다른 외생요인(exogenous factors)들이 존재할 것이다.

4) 1930년대 이래 실업률과 대통령 재선 여부를 분석한 루이스와 시저(Lewis and Ceaser)의 연구에 따르면, 비교적 높은 7% 이상의 연평균 실업률 하에서 치러진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추구한 현직 대통령들 중 3명은 재선에 성공(FDR, Reagan, Obama)하였고 4명은 재선에서 실패(Hoover, Carter, G.H.W. Bush)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균형 있는 결과를 기록했다. Lewis, Verlan and James, W. Ceaser.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2012 by Numbers and in Historical Perspective," *The Forum*, 10(4), 2012. p.33.

에서는 공화당의 선거 참패 후 리브랜딩이라는 장기 과제의 연관선상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화당의 대선 패배 이유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1.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

먼저 흥미로운 분석은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자(the incumbent)였기 때문에 공화당은 결코 이기기 쉬운 선거에서 진 것이 아니라는 분석이다.⁶⁾ 캠벨은 2012년 선거 결과를 현직자 프리미엄(incumbency advantage)이 최악에 버금가는 미국의 경제상황을 압도한 선거로 규정내리고 있다.⁷⁾ 즉,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취약한 재임 중 경제 성적으로 인해 재선 전망이 밝지 않았다면, 공화당 롬니 후보 또한 오바마의 현직자 프리미엄 때문에 이기기 쉽지 않은 선거에 임했던 것이다. 갈스톤(William Galston)에 따르면,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서 실패한 경우는 오직 5 차례뿐이다.⁸⁾ 더욱이 이 다섯 차례의 현직 대통령 패

5) 공화당 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2012년 대선 패배에 대한 다채로운 이유에 대해서는 Frum, D. "Why Republicans Lost-But Can Win Again," *Financial Times*, Nov. 15. 2012. 그리고 Huffington Post. "Conservatives Struggle to Explain How Mitt Romney Lost 2012 Presidential Election," Nov. 9. 2012. 를 참조할 수 있다.

6) Campbell, 2012; Lewis, Verlan and James, W. Ceaser.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2012 by Numbers and in Historical Perspective," *The Forum*, 10(4): 29-35.

7) Campbell 2012, p.21.

8) 이 다섯 가지 사례로는 1912년 선거에서 현직자였던 태프트(William Taft)가 공화당을 탈당하여 진보당(Progressive Party) 후보로 출마한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공화당 지지표를 분산시킴으로써, 민주당의 윌슨 대통령(Woodrow Wilson)에게 패배했던 사례, 1932년 선거에서 대공황의 경제위기에 직면했던 공화당의 후버 대통령(Herbert Hoover)이 민주당의 루즈벨트(FDR) 후보에게 패배한 사례, 1976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포드 대통령(Gerald Ford)이 전임 닉슨(Richard Nixon)의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을 사면해주고자 결정하고, 또 당내 경선에서 레이건(Ronald Reagan)의 강한 도전에 직면 한 후, 민주당의 카터(Jimmy Carter)에게 패배하였을 때, 또 높은 인플레이션과 테드 케네디(Edward Kennedy)로부터 강한 당내 도전에 직면했던 카터가 1980년 레이건에게 패배했던 경우, 그리고 끝으로 뷰캐넌(Patrick Buchanan)의 강력한 도전과 공화당 내 심각한 분열로 인해 클린턴(Bill Clinton)에게 1992년 선거에서 패배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 등의 경우를

배 사례 중에서 상대당 출신의 대통령으로부터 백악관을 물려받고 나서 첫 임기를 보낸 12명의 현직 대통령(first party term incumbent president)의 사례를 보면 현직자 효과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1900년 이래 재선에서 실패했던 첫 임기의 현직자는 민주당의 카터 대통령 유일하다.⁹⁾ 특히 위의 다섯 차례 현직자 패배 사례 중에서 재선에 실패한 4명은 대통령 선거에 앞선 당내 경선에서 도전자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았었으며, 또 두 명의 현직 대통령은 실재 선거에서 강력한 제3 후보의 등장으로 고전을 피할 수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다.¹⁰⁾

이러한 역사적 배경 하에서 바라본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은 사실 상 그다지 놀라운 결과만은 아닐 것이다. 실재로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은 위에 제시한 세 가지 취약효과 없이 고스란히 현직자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¹⁾ 그는 당내 경선과 도전 없이 비교적 강한 결속 하에서 소속 정당의 지원을 받아 선거에 임했으며, 그를 선거에서 위

들 수 있다. Galston, A. William. "The 2012 Election: What Happened, What Changed, What it Means," *Governance Studies at Brookings*, Jan 4, 2013.

- 9) 1980년 카터가 재선에 나설 즈음 미국의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최고조를 육박하는 등 경제상황이 상당히 나빴다. 또한 외교부문에서도 당시 52명의 미국인들이 이란에 이슬람 무장 기한(militants)들에게 인질로 잡혀 있었고, 적절한 조치를 제 때 취하지 못했던 카터 정부는 아무것도 제 때 하지 못하는 대통령으로 국민들에게 비추어지고 있었다. 또한 민주당 내에서도 카터의 재지명(re-nomination)을 놓고 당내 분열이 계속되어 당시 경쟁자였던 테드 케네디(Edward Kennedy)로부터 강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처럼 당시 카터가 직면했던 재선 도전 당시의 상황은 오바마의 2012년 환경에 비해 결코 나쁘면 나빴지 더 좋지는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1980년 늦은 10월 까지 현직자 카터는 상대당 경쟁 후보였던 레이건에게 여론조사에서 리드를 유지하고 있었다. Campbell, 2012. p.25.
- 10) 공화당 태프트는 1912년 공화당 경선에서 테디 루즈벨트의 강력한 도전을 받았고, 1976년 포드는 레이건을 경선에서 이겨야만 했고, 민주당의 카터는 1980년 경선에서 테드 케네디의 도전에 직면하였고, 아버지 부시는 1992년 공화당 경선에서 부캐넌을 꺾어야만 했다. 또한 1912년 공화당 경선에서 패한 루즈벨트는 제 3 정당인 진보당을 이끌고 대선에 참가해 태프트의 당선을 막는데 일조했고, 1992년 선거에서 무소속의 로스 페로(Ross Perot) 후보는 잠재적 공화당 지지성향의 표를 분산시킴으로써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을 방해했다.
- 11) Lewis and Ceaser, 2012. p.23.

협할 만한 역량 있는 제 3 후보의 도전도 존재하지 않았다. 더불어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의 전임 부시 대통령의 연임(2000~2008) 이래 이제 단지 첫 번째 임기만을 마쳤을 뿐이었다. 반면 미국 역사상 재임에 실패한 많은 대통령들은 주지하다시피 같은 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의 오랜 연임 끝에 상대 당에게 재선에서 패배한 경우가 다반사였다. 예를 들어, 테프트 대통령의 경우 그 이전에 이미 5번이나 연속으로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아버지 부시 대통령 또한 같은 당 출신의 레이건이 이미 두 차례나 연임한 후 4번째 공화당 임기에 도전하는 것이었고, 포드 또한 공화당 출신 전임 닉슨의 재선에 이은 세 번째 공화당의 대권 도전이었다.

전술하였듯이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상대당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직을 물려받고 첫 임기를 보낸 현직 대통령이 누리는 선거에서의 프리미엄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악조건의 경제 상황이 재선의 발목을 잡고 경기 회복이 지체되고 있을 때, 그 이유를 다른 당 출신의 전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의 부시와 공화당 정권에 당시 미국이 직면해 있던 경제 상황의 책임을 상당 부분 전가시키고자 하는 선거 전략을 취했고, 실제로 미국이 처한 경제 위기의 책임소재를 묻는 2012년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national exit poll)에서 유권자들의 과반이 넘는 53%가 전임자 부시(George Bush) 대통령을 꼽았으며, 오직 38%만이 오바마의 책임을 꼽았다.¹²⁾ 더욱이 지난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의석을 점유함에 따라 민주당은 의회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나쁜 경제 상황의 원인을 공화당에 전가시키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다. 실제로 2013년 1월에 발표된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와 CBS의 공동 여론조사(NY Times-CBS News Poll, Jan 11-15, 2013)에 따르면, 현재 경제 상황에

12) Campbell, 2012. p.26.

대해 누가 가장 책임이 있냐고 묻는 질문에, 오직 13% 만이 오바마 행정부를 꼽았으며, 27%의 응답자가 전임 부시 행정부를 지적했고, 14%의 조사 대상자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 책임이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나라 경제를 위해 누가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35% 만이 의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라고 답한 반면에 과반수 50%의 응답자가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대답했다. 동일 여론조사 내 유사한 질문으로 연방 예산 적자(federal budget deficit)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오직 37% 만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문제 해결에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50%는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 문제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즉, 1996년 대선에서 클린턴이 당시 미국 정치 사회가 직면했던 여러 문제의 원인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던 의회에 전가시킴으로써, 1996년 재선에서 승리가 한결 여유로워졌듯이,¹³⁾ 2012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 또한 2012 대선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권자 구성의 인구통계적 변화

테익세이라와 할핀(Ruy Teixeira and John Halpin)은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의 2012년 대선 승리를 이끌었던 오바마 선거연합(Obama Coalition)의 구성원으로 흑인과 히스패닉 등의 소수인종(minority) 유권자, 미혼 혹은 일하는 여성 그룹, 20-30대 젊은 유권자(Millennial generation), 그리고 도시에 거주하는 고학력의 백인 유권자들을 꼽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2012년 대선 투표결과를 인구통계적 분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표 1>에 잘 나타나 있다. 표에 따르면 남성 유권자들에 비해 여성 유권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경향이 더 높고, 백인 유

13) Carson, L. Jamie and Stephen Pettigrew. "Strategic Politicians, Partisan Roll Calls, and the Tea Party: Evaluating the 2010 Midterm Elections," *Electoral Studies* 2012:1-11, p.10; 유성진, 정진민. "티파티운동과 미국 정당정치의 변화," 『한국정당학회보』, 제10권, 제1호(136-166), p.153.

권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오직 39%의 지지를 2012년 선거에서 보낸 반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권자 나이가 젊을수록 민주당의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히스패닉 유권자를 제외한 순수 백인 유권자들의 경우 다른 인종 그룹과 비교하여 비록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체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대학 졸업 학력의 백인 유권자들의 경우 전체 백인 유권자 평균 보다 높은 42% 지지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여주었다(롬니-56%).¹⁴⁾

<표 1> 2012년 대통령 선거결과의 인구통계학적(demographic) 분포 (유권자 %)

구분	유권자 분포(%)		2008(%)		2012(%)	
	2008	2012	Obama	McCain	Obama	Romney
전체			53	46	50	48
남성 유권자	47	47	49	48	45	52
여성 유권자	53	53	56	43	55	44
백인 유권자	74	72	43	55	39	59
흑인 유권자	13	13	95	4	93	6
히스패닉 유권자	9	10	67	31	71	27
18-29세	18	19	66	32	60	37
30-44세	29	27	52	46	52	45
45-64세	37	38	50	49	47	51
65세 이상	16	16	45	53	44	56

* 출처: 출구조사(exit poll) 자료(National Election Pool)에 기반하여 작성된 Pew Research Center Report 2012a

14) Teixeira, R. and J. Halpin. “The Obama Coalition in the 2012 Election and Beyond,”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Report*, Dec. 8, 2012, p.5.

또한 18-29세의 백인 청년 유권자들의 경우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백인 전체 평균 보다 높은 44%의 지지를 보냈다. 갈스톤(Galston) 또한 테익세이라와 할핀이 제시한 미국 내새로운 진보 연합의 등장에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갈스톤에 따르면 이렇게 떠오른 진보적 선거 연합세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균등한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좀 더 활동적인 정부역할을 추구한다.¹⁵⁾

이처럼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소수인종계열 유권자들의 현직 대통령 지지는 특히 주요했는데, 실제로 2012년 대선에서 백인을 제외한 소수인종 계열 유권자 구성비는 28%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 중 80%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투표한 반면, 오직 18%만이 공화당의 롬니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⁶⁾ 특히 이들 소수 인종 계열 유권자들의 오바마 후보 지지는 민주당 후보가 오하이오(Ohio)와 플로리다(Florida) 등의 주요 격전주(battleground states)에서 승리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다.¹⁷⁾ 선거 막바지까지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었던 오하이오 주의 경우 흑인 유권자들이 유례없이 높은 선거 참여율을 보임에 따라 그들이 오하이오 주의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의 11%에서 15%로 급상승했는데, 이들 흑인 유권자들은 민주당 오바마 후보에게 96%라는 막대한 지지를 몰아주었다. 플로리다 주의 경우 히스패닉 유권자 비중이 2008년의 14%에서 2012년에는 17%로 약간 증가하였는데, 이들 중 60%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2012 National Exit Poll). 물론 이들 소수 인종 계열 유권자 비중이 해당 주에서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주에서 보수적 백인 유권자

15) Galston, 2013. p.10

16) Teixeira and Halpin, 2013. p.5

17) Pew Research Center Report 2012a

들의 결집과 높은 공화당 지지를 제어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이번 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강한 지지를 보낸 소수인종 계열 유권자들이 미국 전체 유권자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데, 대부분의 소수 인종 유권자들이 전통적으로 공화당 보다는 민주당에 우호적인 성향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유권자 분포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화당 롬니에게 2012년 대선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득표를 선사한 백인 유권자 비중은 주지하다시피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는데, 불과 10년 전의 2000년 대선에서 백인 유권자 비중은 80%에나 달했지만, 2008년에 그 비중은 74%로 감소하였고, 2012년에는 72%로 줄어들었다. 더욱이 미국 내 백인 출산율은 더 이상 미국 전체 출산 비중의 다수(majority)를 차지하지 않으며, 히스패닉을 제외한 순수 백인의 신생아 출산 비중은 2011년 7월 현재 49.6%에 그쳤으며, 51.4%를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그리고 이들의 혼종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백인 인구의 감소 추세는 18-29세의 젊은 유권자 계층에서 벌써 뚜렷이 목격되고 있는데, 2012년 현재 이 연령대에서 오직 58%만이 순수 백인(non-Hispanic White)이 차지하는데 반해, 히스패닉 청년 유권자 비중은 18%를, 그리고 같은 나이대의 흑인 유권자 수는 17%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⁹⁾

현재의 변동 패턴을 바탕으로 2050년의 미국 인구를 추정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히스패닉 인구 비중은 2005년의 14%에서 2050년에는 29%

18) 오바마 후보는 대부분의 격전주에서 백인 유권자들로부터 롬니보다 낮은 득표를 하였지만, 오바마는 그럼에도 18-29세 젊은 유권자들로부터는 더 많은 득표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오바마는 플로리다 주에서 18-29세 유권자로부터 66%의 지지를 받았고(롬니-32%), 오하이오 주에서는 해당 연령층의 유권자들로부터 62% 의지지(롬니-35%)를 이끌어 냈다(Pew Research Report 2012c, Young Voters Supported Obama Less, But May Have Mattered More).

19) Galston 2013, p.4; 18-29세의 청년 유권자 층에서 순수 백인 유권자 비중은 2000년의 74%에서 2004년의 68%, 2008년의 62%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놓여있다.

를 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에 백인 인구(non-Hispanic white population)의 경우 다른 인종 그룹 보다 더디게 성장하여 2050년에는 47%로 감소하여 미국 내 소수 위치(minority)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2050년 까지 전개될 미국 내 인구성장의 대부분(82%)은 앞으로 유입될 이민자(immigrants)와 그들이 미국에서 출산한 후손(U.S.-born descendants)들의 증가에 기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²⁰⁾

그렇다면 소수인종 계열 유권자 비중의 지속적 증가가 왜 앞으로의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또 공화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가? 1964년 민주당 주도로 미국 의회에서 민권법이 통과된 이래로 흑인들을 비롯한 소수인종들은 정치적으로 보다 민주당에 가까운 성향을 보여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²¹⁾ 더욱이 미국 내 소수 인종 계열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사회 하층 계급 출신이 많고, 공화당이 늘어나는 복지예산 증대 및 연방 정부 예산 부족 문제로 이들 소수인종들을 배려하는 다양한 사회 보장 정책 확대에 계속 반하는 정책을 취한다면, 위에서 서술한 미국 내 인구통계적 변화는 계속 공화당에 비해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4년 대통령 재선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들로부터 40%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히스패닉 계열 유권자들이 그들의 전통적 친민주당(Pro-Democrat) 성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공화당 후보에 일정정도 표를 분산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이민정책에 대해 보다 강경한 노선을 고수한다면, 현 미국 사회 이민자 출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급속한 이탈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히스

20) Passel, S. Jeffrey and D'Vera Cohn. "U.S. Population Projections:2005-2050," *Pew Research Center*, Feb. 11, 2008.

21) 최근에 미국에서 치러진 3번의 대선에서 흑인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였다. 먼저 2004년의 선거에서 민주당의 케리(John Kerry) 후보는 88%의 흑인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오바마 후보는 2008년에 95%, 그리고 2012년에 93%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 냈다.

패닉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민 이슈는 선거에서 그들에게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²²⁾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 불법 체류 신분의 이민자들에게 미국 내에서 일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냐고 물었을 때, 77%의 히스패닉 유권자들은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법적 지위(legal status)에 지원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오직 18%의 히스패닉 유권자들만이 불법 이민자들이 국외로 추방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²³⁾ 2008년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후보 개인이 평소 갖고 있던 친이민(pro-immigration) 성향에서 후퇴하는 입장을 취했던 매케인(John McCain)은 그 해 대선에서 오직 31%의 히스패닉 표를 받는데 그쳤다. 또한 2012년 공화당 경선에서 이민 이슈에 대해 가장 극단적인 포지션을 취했던 롬니 후보의 경우 작년 대선에서 히스패닉 유권자들로부터 단지 27% 라는 저조한 지지를 이끌어냈을 뿐이다.²⁴⁾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미국 전체 유권자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공화당이 많은 이민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들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존에 그들이 이민 이슈에 대해 취하고 있던 강경한 정책의 유연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즈(Finacial Times) 기고에서 필립 스티븐스(Phillip Stephens)가 언급하듯이, 기실 많은 히스패닉 유권자

22) Pew Research Center Report, 2012b.

23) 흥미로운 사실은 전체 미국 유권자들의 경우 2/3에 살짝 못 미치는 65%가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법적 지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이처럼 비단 히스패닉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유권자들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 갖는 시선이 상당히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에 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가치조사(values survey)에서는 증가하는 이민자들의 숫자가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위협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46%,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48%로 팽팽하게 맞섰다. 즉, 이 보고서에 한 하여는 이전 조사와 비교해서 미국 시민들 사이의 반이민 정서(anti-immigrant sentiment)가 약하게나마 감소(modest decline)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Pew research center report, 2012d, p. 83.

24) Galston, 2013. p.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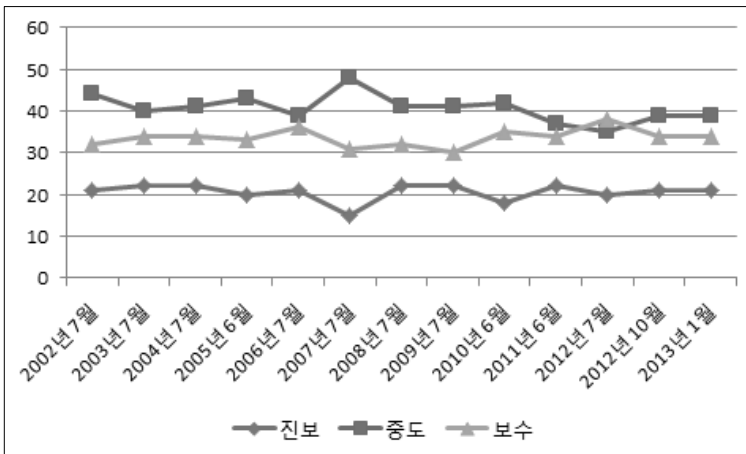
들은 공화당이 내세우는 고유의 가족 중심주의나 전통적인 사회 가치 체계에 일정정도 공유하는 부분을 갖고 있다. 실제로 히스패닉 유권자들 중 많은 수가 소규모 자영업자(small business)이며 세금 및 정부 규제정책에 있어서 공화당을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대다수가 공화당 지지로 선불리 돌아설 수 없는 것은 공화당의 강경한 반이민정책에 기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화당은 그들의 전통적 지지계층인 보수적 백인 유권자 혹은 남부 백인 유권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불법이민자들의 강제추방 같은 가혹한 반이민정책 수단들을 지지해 왔다. 그러나 공화당이 강제 추방하고자 하는 그들 불법 체류 이민자들 중 대다수는 이미 정착에 성공한 이민자들의 자녀일 수도 있고 사촌 혹은 친척일 수도 있다. 현재 불법 체류 신분으로 강제 추방의 위협에 놓여 있는 약 팔십만 명의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을 고려한다면 많은 수의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공화당 보다는 민주당 지지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그다지 놀라운 현상이 아닐 것이다.

3. 문화 전쟁(culture war)에서 패배한 공화당?

앞에서 우리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비단 히스패닉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전체 미국 유권자 그룹 내에서도 과거 보다 유연한 방향으로의 태도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각주 23 참조). 이러한 불법 이민자 처우에 대한 사회 전반적 태도의 유연화는 이와 상관없이 불법 체류자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공화당에게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그런데 비단 이민 정책에서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사회 이슈에서도 다수의 미국 유권자들은 공화당 보다는 민주당에 보다 가까운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⁵⁾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 유권자들 중에서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숫자보다 2000년대에 들

25) Pew Research Report, 2012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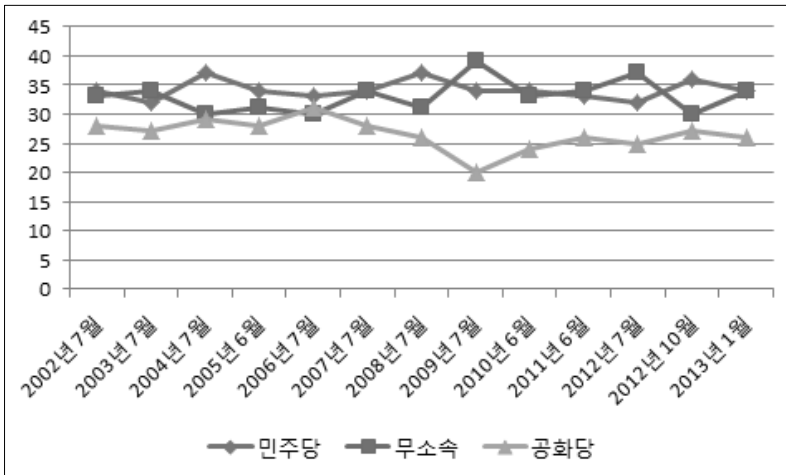
어서도 꾸준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교적 최근까지 공개된 복합적인 여론조사들은 모두 보수적이라고 스스로를 규정짓는 인구 비중이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먼저 갤럽(Gallup)과 USA Today의 공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스스로를 보수적(conservative)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40%로 그 기간 동안 일관되게 조사되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스스로를 진보적(liberal)이라고 대답한 시민의 비중은 일관되게 21%에 머물렀다(Saad 2012). 비교적 최근에 행해진 뉴욕타임즈와 CBS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여전히 보수라고 응답한 유권자 수가 스스로를 진보라고 대답한 응답자 수를 크게 앞질렀는데, 2013년 1월에 행해진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를 진보라고 규정한 응답자 수는 21%에 그쳤으나 스스로를 보수라고 규정한 응답자 수는 34%나 되었다(NY Times-CBS News Poll, Jan 11-15, 2013).



출처: 뉴욕타임즈 CBS 공동 여론조사 (NY Times-CBS News Poll, Released in Jan 11-15, 2013)

<그림 1> 미국 유권자들의 이념적 지향의 변화 패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 보수주의에 보다 가까운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 보다는 진보주의 성향의 민주당 지지성향의 유권자가 여전히 더 높은 비중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것(아래 <그림 2> 참조)은 선거 및 지지 정당 선택에 있어서 미국 유권자들이 결코 일차원적 이념에 기반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²⁶⁾ 또한 이 같은 현상은 물론 컨버스(Phillip Converse)가 제기한 이래로 미국 유권자 행태 분석에 있어서 정설처럼 받아들여진 미국 유권자들의 이념적 비일관성(ideological inconsistency)



출처: 뉴욕타임즈 CBS 공동 여론조사 (NY Times-CBS News Poll, Released in Jan 11-15, 2013)

<그림 2> 미국 유권자들의 정당 일체감(PID)의 변화 패턴

26) 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에 대한 정당 일체감을 갖고 있는 미국 시민들 중에서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규정짓는 사람들의 비중은 줄곧 20%를 넘었다. PEW Research Center가 제시한 2012년 가치 조사(2012 Values Survey)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조사에서 민주당 성향을 보인 사람들 중에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0%,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8%, 그리고 중도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8% 나타났다. 이처럼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 비중은 2000년의 20%, 2004년의 24%, 그리고 2008년의 25%에서 다소 감소된 것이다 (Pew Research Center Report 2012d, 14).

을 보여주는 단적이 예일 수도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이래 빠르게 진행된 미국 의회 내 이념적 양극화(ideological polarization)와 함께 미국 정치 엘리트들의 이념적 위치(ideological position)가 대중들에게 좀 더 명확해짐에 따라 유권자의 이념적 지향과 정당 일체감(party identification) 간의 상관성(혹은 partisan sorting)이 과거에 비해 많이 증대되었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²⁷⁾ 즉, 지지 정당 결정에 있어서 유권자들의 이념적 사고 수준은 과거에 비해 한층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보수적 성향을 갖는 다수의 유권자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을 향한 정당일체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전통적 이념 이슈 외의 그 밖의 다양한 이념 영역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보다 가까운 지향을 찾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즉, 전통적으로 유권자들을 이념적으로 가르는 경제 이슈에서는 민주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 전체 미국 유권자들의 지향과 그다지 가깝지 않을지 몰라도 낙태(abortion)나 동성애자 권리(gay right) 문제 등 주요 사회 이슈에서는 적어도 공화당 보다 민주당이 미국 시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해 주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실제로 <표 2>에서 나타나듯이, 2012년 11월 대선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 역할이나 2010년 의료보험 개혁(Health Care Reform)에 대한 입장 등 전통적인 경제 차원의 이념 이슈에서는 다수의 유권자들이 공화당의 평소 입장에 보다 가까운 보수적 견해를 피력한 반면에, 불법 이민자 문제나, 낙태 및 동성결혼 등 사회 가치문제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더 가까운 진보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사람보다는 정부가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보수적 입장을 보여준 사람들이 18-2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높게 조사되었으며, 의료보험 개혁에 대해서도 그것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폐지해야한다고 대답한 사람의 전체 비중(49%)이 도입된

27) Fiorina, M., S. M. Abrams, and J. C. Pope. *Culture War?* (New York: Pearson, 2006)

의보개혁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44%)를 넘어섰다.

반면에 불법 이민자들에게 법적 지위 회복을 위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그들을 추방해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낙태가 적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 또한 그것이 불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비해 전 연령대에 걸쳐 고르게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동성 간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legally recognized)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49%의 전체 유권자가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그럴 수 없다고 응답한 유권자들(46%)을 살짝 앞서고 있다. 갤럽이 최근 실시한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도 동성 결혼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엿보이는데, 동성 간 결혼이 도덕적으로 용인가능한가에 대해 2012년의 조사에서 54%가 그러하다고 응답한 반면, 42%만이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했다.²⁸⁾ 갤럽에 의해 실시된 동일 설문 조사의 과거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전까지만 해도 동성 간 결혼이 도덕적으로 용납가능 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수가 용납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 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2008년도 조사에서 용납가능과 용납 불가능이 48% 대 48%로 동률을 기록한 이래로 현재까지 동성결혼에 대한 보다 진보적 견해가 미국 전체 유권자들을 기준으로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⁹⁾

28) Edsall, T. B. "The Culture War and the Job Crisis," Nov. 11, 2012, *The New York Times*.

29) Ibid.

<표 2> 연령에 따른 유권자들의 정책 이슈 성향 (%)

구분		전체	18-29세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정부 역할	큰 정부	44	59	45	39	35
	작은 정부	51	37	51	56	58
2010년 의료보험 개혁	확대해야	26	34	29	23	18
	현행대로	18	19	19	17	19
	부분적 폐지	24	23	25	26	20
	전부 폐지	25	18	21	27	31
불법 이민자	기회 줘야	65	68	63	68	57
	추방	28	28	29	26	33
낙태 문제	적법	59	64	58	60	54
	불법	36	32	37	36	40
동성 결혼	인정해야	49	66	50	45	37
	불인정	46	30	46	49	58

출처: 출구조사(exit poll) 자료(National Election Pool)를 토대로 작성된 Pew Research Report, 2012c.

앞의 서론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현재 미국 대법원에 그 위헌성 심사를 위해 계류 중인 캘리포니아 주민 제안 8(California Proposition 8)이 유권자 주민 발의에 의해 2008년에 제정되었는데, 그로부터 4년 후인 2012년 11월 6일 메인 주(Maine), 메릴랜드 주(Maryland), 그리고 워싱턴 주(Washington) 등 세 개 주의 유권자들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는 주민발의에 동의했다. 또한 미네소타(Minnesota) 주에서는 같은 날 동성 결혼을 금지하기 위한 주 헌법 개정 시도가 다수 유권자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³⁰⁾ 또한 2012년 11월 6일에는 콜로라도(Colorado)주와 워싱턴 주에서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recreational use)을 허용하는 주민 발의가 과반수

30) Marcotte, Amanda. "Republicans' Culture War Lost," *The USA Today*, Nov. 7, 2012.

주민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등 미국 18개 주에서 의료용으로 대마초 사용을 승인하고 있지만, 오락용으로 그것을 허용한 것은 이들 두 주가 처음이다. 또 같은 날 플로리다(Florida) 주 유권자들은 주정부 예산이 여성들의 낙태 지원에 사용되는 것을 막고, 낙태를 위한 사적 보험(private insurance)의 적용을 제한하며, 10대들의 낙태 선택을 위한 프라이버시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제기된 수정안 6 (amendment6)을 폐기시켰다. 마지막으로 2012년 11월 상원선거에서 위스컨신(Wisconsin) 주 유권자들은 공공연히 레즈비언임을 표명했던 볼드윈(Tammy Baldwin)을 주를 대표하는 최초의 동성애자인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했다.³¹⁾ 이 모든 현상들은 미국 사회에 오랜 기간 자리 잡고 있던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태도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위에 제시된 사회적 도덕적 이슈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변화와 관련한 모든 조사 결과는 미국인들의 전반적 여론이 상당히 진보적이며, 사회 내 다양성을 허용하고, 자기와 다른 그룹에 대해 관용 있는 태도를 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미국 유권자들의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태도변화는 곧바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지지성향과 곧바로 연결되는데, 실제 한 조사에 따르면, 약 50%의 미국인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오직 36%만이 롬니 후보가 그러하다고 응답하였다.³²⁾ 이는 결국 실제 투표 결과에서 왜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는 소수 인종계열 유권자 그룹에서 경쟁후보에 비해 선전하였고(오바마 -80% vs. 롬니-18%), 또한 오바마 후보가 전체 여성 유권자 투표수에서 37%의 롬니 후보에 비해 19% 더 높은 56%의 지지를 획득했는가 잘 설명해 주고 있다.

31) Edsall, 2012.

32) Stephens, 2012.

Ⅲ. 티파티 운동과 2010년 중간선거

지금까지 우리는 이민, 낙태, 동성 결혼 등 다양한 사회적 도덕적 이슈에 대한 공화당의 입장이 대다수 미국 사람들의 정치적 견해(political mainstream)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공화당 대선 패배의 주요 이유로 꼽았다. 그리고 위의 주요한 사회적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공화당의 태도 재정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미국 정국에서 상당 기간 공화당이 고전할 수도 있음을 전망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안은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보다 불과 2년 앞서 치러진 2010년 하원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히 문제의 초점은 타협을 거부하는 극단적 보수주의 성향으로 알려진 티파티(Tea Party) 운동이 종종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의 주요 원동력 중 하나로 거론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이다. 실제로 티파티 세력이 당시 지지한 129명의 하원 선거 출마자 중에서 39명이 당선되었고, 9명의 상원 선거 후보자 중에서 5명이나 의회에 입성하였다.³³⁾

이처럼 불과 2년 전 선거에서 티파티 운동의 선전을 본다면, 공화당의 2012년 대선에서의 패배는 이념적 순수성(ideological purity)에 충실하지 못한 친-중도성향 후보를 선출했기 때문으로 자칫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10년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의 선전만으로 극단적 보수주의에 입각한 티파티 운동의 성공을 논하기엔 아직 무리가 많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중간 선거는 줄곧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³⁴⁾ 미국 유권자들은 전통적으로 중간 선거를 통해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현직 대통령을 견제하고 어느 한 정당이 모든 입법과정을

33) Williams, V, T. Scopol, and J. Coggin. "The Tea Party and the Remaking of Republican Conservatism," *Perspectives on Politics*, 9(1):25-43, 2009.

34) Bond, J. R., R. Fleisher, and N. A. Ilderton. "Was the Tea Party Responsible Victory in the 2010 House Elections?" *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p, 2011; Carson and Pettigrew, 2012.; Tufte, 1975.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를 양산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따라서 비단 티파티 운동 변수의 역할을 차치하고서라도, 2010년 의회선거 결과는 지극히 정상적(normal)인 것이었다. 실제로 미국 선거 역사상 1938년 이래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경우는 오직 2차례에 지나지 않는다.³⁵⁾

더욱이 티파티 성향의 공화당 후보들은 기존에 공화당 지지층이 두터운 주(red state)에선 강한 면모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경합 주(battle ground states)에서는 그다지 훌륭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실제로 이념적 동질성이 높은 주들에서의 선전과 달리 이질성이 높은 콜로라도(Ken Buck), 네바다(Sharron Angle), 그리고 델라웨어(Christine O'Donnell)에 출마했던 티파티 계열의 공화당 후보자들은 모두 상원의석을 되찾아 오는데 실패했다. 특히 상원선거에서 공화당 공천의 잠재적 실패 사례로 거론되는 델라웨어 주의 경우, 8년의 주지사 이력과 9번째 하원의원 임기를 수행 중인 현직의 캐슬(Mike Castle)이 공화당 경선에서 오도넬에게 패배했는데, 만약 티파티 성향의 오도넬 대신 캐슬이 공화당 공천을 받았다면, 그의 지명도와 선거 캠페인 능력으로 볼 때, 델라웨어 주 상원의원 선거는 보다 치열했을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³⁶⁾ 다시 말하면, 티파티 운동은 지난 2010년 선거에서 평소 공화당 지지성향의 유권자들을 확실히 동원하고 결집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으나, 주(state) 내 이념적 이질성이 높은 경합 주에서는 반드시 그 운동이 선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만은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를 당 내 예비선거(primary election)와 실제 선거(general election) 상황에 빚대어 설명해 보면, 공화당 대선 및 의회 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티파티 지지자들을 비롯한 극단 세력에 호소해야 하지만, 이런 예비선거 전략이 결국 그들 공천된 후보자들로 하여금 실제

35) Bond et al., 2011.

36) Carson and Pettigrew, 2012. p.7.

선거에서 좀 더 이념적으로 중도(moderate) 성향이 강한 부동층(swing voters)의 지지를 동원하는데 있어서 큰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³⁷⁾ 2012년 대선의 예를 들면, 본래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liberal)인 주(Massachusetts)의 공화당 출신 주지사로서 여타 공화당 대선 후보들에 비해 중도에 가까운 배경을 갖고 있던 롬니 후보가 예비 선거에서 공화당의 보수적 지지계층에 호소하기 위해 이민, 낙태, 동성애 등의 주요 선거 이슈에 있어서 평소 보다 보수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 대선에서의 승리는 주로 경합 주에서의 승리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선 선거전략 차원에서 티파티 운동이나 이념적 극단주의로 무장한 방식이 반드시 효과적일 수 없다는 사실은 공화당과 롬니 후보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실제로 2012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오바마 대통령은 노스 캐롤라이나(North Carolina)를 제외한 전체 경합 주(플로리다, 오하이오 등)에서 롬니 후보를 앞질렀다.

물론, 티파티 운동이 사회적, 도덕적 이슈보다는 재정적 보수주의에 보다 충실한 대중 운동이라는 기존 견해에서 본다면, 티파티 운동의 성패는 위에서 제시한 공화당의 대선 패배 원인으로서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보수성 문제와 다소 거리를 둘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티파티 운동은 사회적 도덕적 이슈들 보다는 감세 및 재정지출 축소 등 주로 재정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보수주의를 바탕으로 이전까지 전개되어 온 공화당 중심의 풀뿌리 대중운동과 뚜렷한 차별성을 지닌다고 알려져 있다.³⁸⁾ 공화당을 현재 구성하는 두 개의 주요 분파로 우리는 개인 및 시장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경제적 보수주의로 무장한 전통적 자유주의 세력, 그리고 사회적, 도덕적 이슈들에 보다 관심을 두고 가족을 포함한 전통적 가치의 보전을 위해 필요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 역할도 옹호하는 사회적 보수주의자(social conservatives)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³⁹⁾

37) Abramowitz, 2011. p.16.

38) 유성진, 정진민, 2011. p.141.

이런 공화당 내 역학구조 하에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정부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게 됨에 따라 작은 정부와 감세, 재정 지출의 감소 등 경제적 보수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등장한 티파티 운동은 지난 2010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의 원동력으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중간 선거 승리 이후 공화당 내 힘의 균형이 사회적 보수주의자들에 비해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움직일 것으로 내다보는 조심스런 전망도 존재하였다.⁴⁰⁾

그러나 백인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티파티 운동의 원주민주의(nativism)적 특성을 고려할 때, 티파티 지지세력이 공화당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당의 이민 정책을 강경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경우 이번 2012년 대선에서처럼 많은 이민자를 포함한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고, 빠르게 증가하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비율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백인 중심의 티파티 운동의 득세는 공화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⁴¹⁾ 더욱이 티파티 지지자들을 분석한 최근의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그들이 낙태 및 동성 결혼 등의 사회 문제에 있어서도 보수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 티파티 지지자들은 감세 및 작은 정부 등의 자유주의적 가치관과 더불어 사회적 보수주의 가치관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⁴²⁾ 즉, 티파티 지지자들은 여타 미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까지 주목해온 경제 이슈에서 뿐만 아니라 인종, 그리고 사회 문제 등 제반 정책 이슈에서도 보다 보수적인 성향

39) 유성진, 정진민, 2011; 이해정. “미국 공화당의 위기: 보수의 역사적 정체성과 정치적 과제,” 『의정연구』, 제15권, 제1호(209-235). 2008.

40) 유성진, 정진민, 2011. p.156.

41) Ibid., p.160.

42) 그러나 아시녹스와 니콜슨(Arceneaux and Nicholson)은 인종적 혐오가 티파티 지지자들이 정부 지출 증가에 반대하는데 있어서 일정정도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티파티 운동의 성격을 규정짓는 주요 인자는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Arceneaux, K, and Stephen P. Nicholson. “Who Wants to Have a Tea Party? The Who, What, and Why of the Tea Party Movement?”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012(Oct):700-709. p.171.

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티파티 운동을 주로 백인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던 사회적 보수주의 민중 운동의 재포장(rebranding)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⁴³⁾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티파티 운동의 핵심은 경제적 보수주의가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인종적 혐오(racial resentment)로 대변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보수주의적 태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은 알려진 것과 달리 티파티 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 보조 프로그램(Social Security, Medicare) 수혜계층이라는 데 있다. 따라서 그들(주로 백인)이 반대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정부 보조의 감축이 아닌 일하지 않고, 사회 공헌 없이 혜택만 누리는 무임승차자(freeloader)들이다. 여기서 사회 보조 프로그램 수혜의 자격이 없는 무임승차자들의 대부분은 일하지 않는 젊은이들이나 불법이민자들로 정형화된다. 특히, 불법 이민자들은 스스로를 생산적 일꾼(productive citizen)으로 간주하는 “보통의 미국인(average American)”- 보다 명확히는 백인 티파티 운동 참여자들의 경제적 이해에 큰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고, 따라서 이들에게 불법 이민 이슈는 아주 중대한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윌리엄슨(Vanessa Williamson)을 비롯한 학자들은 백인 중심의 티파티 운동을 소수인종에 대한 혐오를 바탕으로 1970년대 이래 꾸준히 존재했던 보수주의 민중운동의 재현 정도로 간주하는 것이다.⁴⁴⁾

여전히 티파티 운동의 종합적 성격을 재정적 자유주의나 사회적 보수주의의 어느 한 갈래로 묶는 데는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아시녹스와 니콜슨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티파티 지지자들은 결코 획일적이지 않으며(not uniform), 운동 내부에도 정치 이념적 태도와 인종적 혐오를 둘러싸고 상이성(heterogeneity)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

43) Williamson, Skocpol, and Morris, 2011.

44) Ibid.

되었다.⁴⁵⁾ 또한 티파티 운동의 지지계층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여론조사
 사의 주체나 시기에 따라 상이한 분석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기존의
 티파티 운동을 분석했던 대부분의 글들은 그 지지자들이 미국 일반 대중
 과 비교했을 때, 대체로 고학력, 고소득, 백인, 노년층의 공화당원일 가능
 성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나, 다른 최근 분석에 따르면, 티파티 운동의 지
 지지자들이 백인의 공화당 지지성향일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그들이 고소득, 고학력, 고연령일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⁴⁶⁾
 또한 박지광(2012)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에 실시된 여론조사들은 일
 관되게 티파티 지지자들이 비지지자들과 비교하여 고학력, 고소득, 고연
 령일 것이라는 기존의 시각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2012년에 실시
 된 여론조사에서는 기존의 견해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찾기 힘들다고 나
 타났다. 이처럼 티파티 운동의 전반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종합적 판단
 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앞으로 그
 운동의 정치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IV. 유권자의 눈에 비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이미지

최근에 공개된 뉴욕타임즈 CBS 공동 여론조사 (*NY Times-CBS News
 Poll, Released in Jan 11-15, 2013*)에 따르면, “국가경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50%의 미국 사람
 들이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대답한 반면, 오직 35%의 사람들만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유사한 질문으로 현재 미
 국이 처해있는 연방정부 예산 적자(*federal budget deficit*) 문제를 해결할
 책임자로 의회 내 공화당과 오바마 대통령 중 누구를 꼽느냐는 질문에도

45) Arceneaux and Nicholson, 2012.

46) 박지광. “티파티 운동 지지계층 분석-여론 조사 자료에 의거한,” 『국제지역학논총』,
 제5권, 제1호(51-69). 2012.

역시 50%의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을 선택한 반면에 오직 36%만이 의회 내 공화당을 선택했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첫 4년 임기가 끝난 현 시점에서, 미국의 계속되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많은 미국 사람들은 국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민주당 행정부를 꼽고 있다. 또한 많은 미국인들은 2013년 1월 현재 까지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미국 국가 경제 위기의 주된 책임을 오바마 대통령(13%) 보다는 여전히 전임 부시 정권(27%)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부분에서의 미국 시민들의 공화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보다도 미국 유권자들이 바라보는 공화당의 이미지에 장기적 관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시민들의 눈에 비친 미국 양당의 이미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최근의 Pew Research Report에 의하면, 미국 시민들에게 공화당은 원칙적(principled)으로 보이지만, 반면에 일반인들로부터 멀게 느껴지며(out of touch), 또한 지나치게 극단적으로(extreme) 비치고 있다고 한다.⁴⁷⁾ 구체적으로 “[]당은 미국 시민들로부터 거리가 멀다(out of touch)”라는 진술에 대하여 62%의 사람들이 공화당에 대해 긍정적인 반면, 그 보다 16% 작은 46% 사람들만이 민주당이 그러하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각 정당의 극단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39% 보다 13% 높은 52%의 미국 시민들이 공화당이 지나치게 극단적(too extreme)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각 정당의 변화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change)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8%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해 그러하다고 대답한 반면, 이 보다 19% 포인트 낮은 단지 39%의 사람들만이 공화당이 변화에 개방적이라고 긍정하였다. 다만, 두 당의 원칙주의(strong principles)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만 공화당(63%)이 민주당(57%) 보다 6% 포인트 높은 응답을 미국 시민들로부터 받는데 공화당은 만족해야 했다.

47) Pew Research Report, 2013.

두 당의 전반적인 이미지(overall image)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도 공화당의 경우 2013년 1월 현재 58%의 미국 사람들이 부정적 인식(unfavorable impression)을 갖고 있다고 조사된 반면, 오직 33%만이 공화당에 대해 긍정적(favorable)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⁴⁸⁾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의 경우 47%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호의적으로, 그리고 유사한 46%의 사람들이 민주당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조사에서 눈여겨 볼만한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보다도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들의 지지 정당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더 낮은 만족도를 피력하고 있다는 점인데, 실제로 민주당 성향의 미국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에 대한 선호도는 87%에 이르지만, 공화당 성향의 미국인들 중에서 단지 69%만이 자신이 지지 하는 정당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공화당 성향의 대중들이 공화당에 느끼는 거리감에서도 엿보이는데, 같은 조사에서 36% 공화당 성향 미국 유권자들이 공화당이 일반 미국 시민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다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 성향 미국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일반인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3% 포인트 낮은 23%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공화당은 현재 미국 일반 유권자들로 부터뿐만 아니라 공화당을 지지해 온 사람들에게 마저 거리감 있는 정당으로 비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현재의 공화당이 미국 유권자들과 더불어 그들의 전통적 지지자들의 견해마저도 정책적으로 잘 반영해 주고 있지 못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결국 공화당이 앞으로의 선거에서 그들의 고정 지지층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반 대중들의 지지를 동원해 내기 위해서는 공화당의 전반적 이미지 혹은 브랜드에 대한 재고(再考) 혹은 리브랜딩(re-branding)이 필요할 것이다.

48) Ibid.

V. 결론

지난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메릴랜드 주에서 개최된 “보수주의 정치 행동회의”(CPAC 2013,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는 앞으로 공화당이 나아가야 할 진로에 대한 당내 이견이 다시금 적나라하게 표출된 장이었다. 롬니는 회의에 참석자들 앞에서 연설하기를 “보수주의자들은 (2012년 선거에서의) 나의 실수, 그리고 우리들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어야”한다고 역설하였지만, 그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제각각 이었다.⁴⁹⁾ 특히, 이민 및 동성 결혼 문제에 있어서 공화당 내부의 변화의 조짐은 관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주요 쟁점 이슈들을 둘러싼 공화당 내의 이견은 여전히 견고해 보인다. 이번 CPAC 2013의 대선 후보 예비 투표(straw poll)에서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어 1등을 차지한 켄터키 주 상원의원 랜드 폴(Rand Paul)은 연설에서 “새로운 공화당은 경제와 개인 영역 모두에서 자유 가치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공화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유는 당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고 당의 개혁을 주창하였다.⁵⁰⁾ 반면 전 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 릭 샌토룸(Rick Santorum)은 이런 변화 요구에 대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포기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개혁)운동에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였다.⁵¹⁾ 이 같은 당내 이견은 공화당이 현재 지지 기반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당의 이념적 위치를 좀 더 가운데로 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오직 이념적 순수성에 충실할 때 전통적 지지계층을 동원할 수 있다는 원칙론을 고수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여전히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한 단면이다.

49) Rutenberg, J. and R. W. Stevenson. “G.O.P. Divisions Fester at Conservative Retreat,” Mar. 15, 2013, *The New York Times*.

50) “The new GOP will need to embrace liberty in both the economic and personal sphere. If we’re going to have a Republican Party that can win, then liberty needs to be the backbone of the GOP.”

51) “What does it profit a movement to gain the country and lose its own soul?”

기실 공화당은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변화의 방향을 둘러싸고 여전히 분열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 변화를 얘기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이 공화당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변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논박하고 있다. 물론 현재의 공화당에게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재로 이번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 승리의 마진(margin)은 역대 선거와 비교하여 절대 크지 않았다.⁵²⁾ 또한 미국 정치의 이념적 양극화가 심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 후반 이후(1968년 이래) 치러진 대선에서 공화당은 일곱 번 승리함으로써 다섯 차례 승리한 민주당에 근소한 우세를 보여주고 있다. 비교적 최근의 2000년 이후 치러진 4번의 대선에서는 또한 2:2로 균등하게 승리를 나누어 가졌다. 따라서 이번 2008년과 2012년 대선 결과를 두고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앞에서 계속 서술하였듯이, 공화당이 미국의 젊은 유권자들, 그리고 그 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미국 내 소수 인종 집단 사이에서 갖는 지지도가 민주당에 비해 상당히 취약하다는 데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공화당이 이민, 동성 결혼, 낙태, 등 주요 사회적 도덕적 가치 이슈들에 대해 현재 취하고 있는 입장이 미국 대다수 사람들의 견해(political mainstream)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는 데 있다. 1980년대 이후 공화당은 인종, 낙태, 동성애, 학교예배, 이민문제 등 비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들을 정치쟁점화 함으로써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다수의 백인 유권자들을 공화당 지지세력으로 동원하는데 주력해왔다.⁵³⁾ 특히 뉴딜연합(New Deal Coalition)하에서 오랜 기간 민주당 지지성향을 견지해 왔던 많은 보수 성향의 남부 백인이나 백인 노동자 계급은 민주당 및 뉴딜연합을 이탈하여 점차 미국 내

52) Lewis and Ceaser, 2012.

53) 유성진, 정진민. 2011. p.141.

주요 사회 이슈들에 있어서 보수적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공화당 지지로 돌아섰다(정진민 1996, 최준영 2007, 정진민, 유성진 2011). 그러나 공화당이 과거 뉴딜연합의 해체를 위해 시도했고 또 당시 주효했던 남별 전략(southern strategy)이 현재 공화당에게 새로운 시련을 선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2012년 미국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의 젊은 층 유권자와 소수인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진보적 선거연합의 등장은 과거의 뉴딜연합(New Deal Coalition)을 대체하여 향후 미국 정당정치에서 민주당에게 상당 기간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었다.⁵⁴⁾ 공화당을 중심으로 좀 더 개혁적인 보수주의(reformist conservatism)-사회 이슈에 대해 좀 더 관용적이고, 이민과 사회 다양성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며, 재정 문제 및 정책 성향에 대해 더 유연하며, 사회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시장 규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변화된 보수주의-가 새로운 브랜드로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것이다.⁵⁵⁾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세 번 연속 대선에서 공화당에 쓰디쓴 패배를 당한 후, 좀 더 중도에 가까운 노선을 표방한 클린턴 중심의 민주당 개혁 세력이 1992년 대선 승리를 이끌어 냈듯이, 공화당에도 그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2013년 5월 현재 2008년 대선 후보였던 메케인(John McCain), 그리고 공화당 차기 유력 대권 주자 중 하나인 플로리다의 루비오(Marco Rubio) 등 공화당 거물 정치인들을 포함한 상원의 초당적(bipartisan) 구성원들이 이민법 개혁(immigration reform)에 대한 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이다. 이러한 공화당 거물 정치인들의 개혁적이며 초당적인 움직임은 앞에서 말했던 공화당 내부에 존재하는 위기의식의 한 단면을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공화당 유력 정치인

54) 1930년대 형성된 뉴딜연합과 그 약화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진행된 공화당의 남별 전략에 관하여는 정진민(1996)과 최준영(2007)을 참조할 수 있다.

55) Galston, 2013. p.10.

들의 당 이미지 개혁 노력에 대해 공화당 내부로부터 이민법 개정에 대한 보수적 반동도 여전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알라바마 주 상원의원인 세션스(Jeff Sessions), 텍사스 주의 크루즈(Ted Cruz) 등이 이런 당내 전통적 보수주의 흐름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공화당 내부의 개혁 움직임이 어떻게 귀착될지는 당분간 지켜볼 일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화당 내 내부갈등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런 당내 균열이 공화당의 이미지나 리브랜딩 노력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은 분명할 것이다.

Works Cited

- 박지광. “티파티 운동 지지계층 분석-여론 조사 자료에 의거한,” 『국제지역학논총』, 제5권, 제1호(51-69). 2012.
- 유성진, 정진민. “티파티운동과 미국 정당정치의 변화,” 『한국정당학회보』, 제10권, 제1호(136-166). 2011.
- 이혜정. “미국 공화당의 위기: 보수의 역사적 정체성과 정치적 과제,” 『의정연구』, 제 15권, 제1호(209-235). 2008.
- 정진민. “미국정당정치의 변화-뉴딜연합의 약화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30권, 제1호(199-222). 1996.
- 최준영. “공화당의 남북전략과 남부의 정치적 변화,” 『신아세아』, 제14권, 제3호(154-177). 2007.
- Abramowitz, Alan. “Partisan Polarization and the Rise of the Tea Party Movement,” *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p, 2011.
- Arceneaux, K, and Stephen P. Nicholson. “Who Wants to Have a Tea Party? The Who, What, and Why of the Tea Party Movement?”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2012(Oct):700-709.
- Bond, J. R., R. Fleisher, and N. A. Ilderton. “Was the Tea Party Responsible Victory in the 2010 House Elections?” *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ep, 2011.
- Campbell, James. “The Miserable Presidential Election of 2012: A First Party-Term Incumbent Survives,” *The Forum*, 10(4): 20-28, 2012.
- Carson, L. Jamie and Stephen Pettigrew. “Strategic Politicians, Partisan Roll Calls, and the Tea Party: Evaluating the 2010 Midterm Elections,” *Electoral Studies* 2012:1-11.
- Dorning, M. and J. McCormick. “Republicans Stung by Loss Begin Debate Over Future,” *The Bloomberg*, Nov. 7. 2012.
- Edsall, T. B. “The Culture War and the Job Crisis,” Nov. 11. 2012, *The New York Times*.
- Fiorina, M., S. M. Abrams, and J. C. Pope. *Culture War?* (New York: Pearson, 2006)

- Frum, D. "Why Republicans Lost-But Can Win Again," *Financial Times*, Nov. 15. 2012.
- Galston, A. William. "The 2012 Election: What Happened, What Changed, What it Means", *Governance Studies at Brookings*, Jan 4, 2013.
- Huffington Post. "Conservatives Struggle to Explain How Mitt Romney Lost 2012 Presidential Election," Nov. 9. 2012.
- Lewis, Verlan and James, W. Ceaser.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2012 by Numbers and in Historical Perspective," *The Forum*, 10(4): 29-35, 2012.
- Marcotte, Amanda. "Republicans' Culture War Lost," *The USA Today*, Nov. 7. 2012.
- New York Times and CBS News Poll*, Jan. 11-15, 2013.
- Passel, S. Jeffrey and D'Vera Cohn. "U.S. Population Projections:2005-2050," *Pew Research Center*, Feb. 11, 2008.
- Pew Research Center Report. "Chaning Face of America Helps Assure Obama Victory," Nov. 7. 2012a.
- Pew Research Center Report. "Latino Voters in the 2012 Elections," Nov. 7. 2012b.
- Pew Research Center Report. "Young Voters Supported Obama Less, But May Have Mattered More," Nov, 26. 2012c.
- Pew Research Center Report. "GOP Seen as Principled, But Out of Touch and Too Extreme," Feb, 26. 2013.
- Rutenberg, J. and R. W. Stevenson. "G.O.P. Divisions Fester at Conservative Retreat," Mar. 15. 2013, *The New York Times*.
- Saad, L. "Conservatives Remain the Largest Ideological Group in U.S.," *The Gallup Report*, Jan. 12, 2012.
- Stephens, P. "Republicans Are Losing the US Culture Wars," *Financial Times*, Oct. 4, 2012.
- Stolberg, G. Sheryl. "Republicans Sign Brief in Support of Gay Marriage," *New York Times*, Feb. 26, 2013.
- Teixeira, R. and J. Halpin. "The Obama Coalition in the 2012 Election and Beyond,"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Report*, Dec. 8. 2012.
- Weisberg, Jacob. "Mittl Romney Lost Because of the GOP's Growing

Extremism,” *The Slate*, Nov. 7. 2012.

Williams, V, T. Scopol, and J. Coggin. “The Tea Party and the Remaking of Republican Conservatism,” *Perspectives on Politics*, 9(1):25-43, 2009.

- 논문 투고일자: 2013. 04.19
- 심사(수정)일자: 2013. 05.04
- 게재 확정일자: 2013. 05.14

Abstract

**2012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Challenges for
the Republican Party**

Jae Mook Lee

(Yonsei University, the Institute of State Governance Studies)

This study analyzes the 2012 U. S.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focusing on some scholarly accounts that explain why the Republican candidate lost the November election. Although the last U. S. Presidential election was believed for some Republicans to be “impossible-to-lose” election due to the enduring economic depression, the GOP failed to win the election. Drawing upon some scholarly and journalistic analyses of the 2012 U. S. Presidential outcomes, I suggest some reasons explaining why the Incumbent President Obama could win the election despite the bad economic condition. I contend that the incumbent president won the election not only because he had the incumbent advantage but also because a demographic shift has been occurring among the U. S. population to advantage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liberal party won the culture war. In addition to these, I also demonstrate that the U. S. electorate has been increasingly alienated from the Republican Party in terms of the party image as well as ideological orientation. Taken these together, I conclude that the GOP needs some party rebranding to survive in future elections.

Key Words

2012 U. S. Presidential Election, incumbent advantage, demographic shift, culture war, party rebranding